

## “과학기술 선진화에 가교역할을”

### 金대통령, 교포과학기술자 2백17명 청와대초청 다과회서 당부



▲ 金泳三대통령이 6월27일 하오 청와대에서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교포과학기술자들을 초청, 다과를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

金泳三대통령은 6월27일 “21세기에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정부는 해외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국내연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제도

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과총주최로 열린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金鉉佑재일과협회장 등 12개국 2백17명의 교포 과학기술자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 목표는 21세기에 최소한 G7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 교포 과학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진화에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리에는 鄭根謨과기처장관, 崔亨燮과총회장,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蔡永福과학기술한림원사무총장, 李宗勳한국전력공사사장, 李敎一대한기계학회회장등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 '96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 盛

### 미국·구라파 등지서 교포과학기술자 등 3천5백명 참가

지구촌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한마당 큰잔치인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6월24일부터 7월6일까지 13일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30돌을 기념해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미국·일본·구라파·호주·중국·독립국가연합 등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과학기술자 2백90여명과 국내과학기술자 3천여명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우리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에서 117명

이 참가한 것을 위시하여 일본에서 53명, 독일 23명, 캐나다 19명, 호주·중국·CIS 각각 18명, 영국 13명, 프랑스 9명과 재일본 조총련계 학자 2명(고려학회소속)도 참가했다.

#### 최신연구논문 3백58편 발표

이번 한민족 학술제전은 6월24일 국외참가자들의 등록으로 시작, 협의회가 있는 후 개최식에 이어 곧바로 학술발표에 들어가 28일까지 5일간 △수학·통계·물리·화학·생명과학을 포함한 기초과학그룹 △전기·전자·정보통신



▲ 6월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李壽成국무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

그룹 △고분자·재료·화학공학그룹 △기계·항공·산업공학그룹 △토목·건축·환경·에너지·도시·주택·교통그룹 △농학·식품과학그룹 △의·약학그룹 등 7개 그룹 33개 분야에서 총 3백58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각 학술발표그룹별로 재외과학기술자들의 특별강연(22편)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의 세계화 추진전략」 「남북과학기술협력 및 통합과 전망」 「일본의 첨단기술」 등을 주제로한 특별포럼이 마련돼 세계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비롯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합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으며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과학기술전략 등도 소개됐다.

### 개회식에 李壽成총리 등 참석

한편 6월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 鄭根謨과기처장관, 閔寬植과총 명예회장, 崔亨燮과총회장, 李祥羲국회의원, 權彝赫학술원회장, 趙完圭한국과학기술원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崔亨燮과총회장의 개

회사, 李壽成국무총리의 치사에 이어 재외과학대표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崔亨燮과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4년 국내외한국 과학기술인의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과총이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22년의 연륜을 기록한 이 학술대회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평가될만한 업적을 쌓아왔을 뿐만아니라 국내과학기술계의 발전방향이나 방법에 대하여 나침판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崔회장은 이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산업경제발전은 오직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이 있을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5백만 과학기술인은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발전의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기술은 물론 기술개발의 원천인 기초연구의 발전에 과감히 도전하여 우리의 힘으로 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李壽成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어느나라도 국가발전의 핵심요소인 첨단과학기술의 확보없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 관계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북과학기술협력 및 통합과 전망」에 관한 포럼에서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이 기초강연을 하고 있다.



▲ 5일간 실시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기초과학그룹 등 7개그룹 33개분야에서 3백58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모방단계에서 벗어나 고유의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창조단계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또 “200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최선진국을 건설한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13위권에 있는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2천년대 초까지 선진G7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은 물론,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초과학의 육성,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적극 전개해 나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문화진흥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과학기술인력 유치 상담도

한편 이번 대회기간동안 취업정보회사인 (주)인턴 주관으로 「해외과학기술자 인재유치센터」가 설치돼 해외고급인

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유치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유치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한 현대전자, LG전자, 삼성그룹, 기아자동차, 한국통신, 한화그룹,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등의 기업관계자 및 연구소 요원들이 직접 나와 관련분야의 교포과학기술자들의 취업알선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담을 벌였다.

이밖에도 해외동포과학기술자들은 이번 대회기간중 학술논문발표외에도 1박2일에 걸쳐 3개코스로 나누어 연구·교육기관견학 및 산업시찰에 참여했으며 동반가족들은 민속촌·창덕궁 등을 둘러보는 가족문화관광도 실시했다.

6월28일에는 崔亨燮회장을 비롯한 대



▲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환영연에서 鄭根謨과학기술처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임원진과 재외과학 임원, 사무처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리셉션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崔亨燮과총회장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적극 협조한 辛雨承재영과학회회장 등 재외과학회장들에게 감사패를, 그리고 사무처직원에게는 표창패가 주어졌으며 재외과학대표 일동은 과총 崔亨燮회장, 鄭助英 상임부회장, 李傑三사무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 과학기술세계화전략포럼 주제발표요약

#### 학회 학술활동의 정보화·세계화

朴 贊 謨(포항공대교수)

과학기술학회 정보가 연구개발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질수록 연구개발활동에서 정보의 비중이 커지고있다. 과학기술정보는 중요 생산요소로서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으로 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의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화는 과학기술의 고급인력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학회의 정보화는 국내과학기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학회들은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정보화의 수준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주요인은 재정적인 요인과 함께 아직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전체

학회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의 정보화를 급속히 추진하여 기술개발의 원천으로서의 학회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과학기술처)내에 학회정보화추진전담부서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함께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학회정보화추진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개 학회를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보화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학회의 정보화 추진비담을 확산시키고, 학회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학회학술활동 육성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내에 학회정보화추진중앙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학회의 정보화를 독려, 지원하고 평가등 사후관리를 담당해야 하며 ▲추진기간 중 필요한 연평균 20억여원의 투자재원은 70개 주요학회의 정보화를 위한 최소, 필요불가결의 금액으로써 과총의 학회지원예산(1995년도 약 30억원)에 특별항목으로 증액시키거나, 한국과학재단이 기초연구기금에서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 의장에 崔亨燮과총회장 선출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共同協, 공동선언문 채택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협의회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는 7월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崔亨燮과총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安世榮재미과협회장·金在兢재독과협회장·金鉉佑재일과협회장·李傑三과총사무차장, 그리고 감사에 崔알렉세이 재CIS과협회장을 각각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했다.

崔亨燮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공동협의회에서는 또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의 해외개최와 연계하여 '97세계한민족공동협의회 총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개최를 희망한 재미과협, 재중과

협, 재CIS과협 등 3개 주재국가운데 차기개최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각 재외과협별 활동보고가 있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또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3개항의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협의회는 과총을 비롯 미국, 독일, 영국, 불란서,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지의 한국과학기술자협회 15개 회원단체를 포용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과총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 공동선언문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6년 7월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에서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 진흥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 정보 제공과 연구협력 그리고 첨단기술 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국가의 대외경쟁력 배양이 국력신장의 첩경임을 직시하고 고급과학기술 두뇌 확보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들은 조국의 평화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동참할 것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한다.

1996년 7월 3일

'96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참가자일동

### 남북과학기술협력포럼 기초강연 요약

#### 남북한과학기술 협력과 통합방안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과학기술통합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교류는 비정치적분야로서 남북한이 상호정치체제 또는 이데올로기와는 별개의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야래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구축과 동질성회복 그리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면서 기술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정책기조를 두어야 한다.

특히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는 공통관심분야부터 추진하되 협력의 주체는 민간차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민간합동, 정부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기에는 혼란과 비능률을 막기 위하여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관제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과학기술교류 협력여건 조성과 효과적인 협력메카니즘의 형성등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의 상호 결합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실리를 취할 수 있고 필요기술의 이전을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치중립적인 과학기술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한 동질성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먼저 남북상호간의 과학기술수준 및 연구시설과 장비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 연구자료와 시설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연구기능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지원, 시설 및 기자재지원, 공동연구참여 등을 통하여 북한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능하면 남북한 중간에 공동연구단지(예:비무장지대)를 건설하여 통합에 대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차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합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는 현재의 어려운 북한의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남한측이 중심이 된 자원의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조성중인 「남북협력기금」과 연계하여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의 설치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